

제주Utd, 헤이스 앞세워 첫 승 노린다

내일 K리그1 2023 2라운드 대구FC와 원정 격돌 데뷔전 미뤄진 헤이스·유리 시너지 효과 등 기대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대구 원정에서 2023시즌 첫 승 상냥에 나선다.

제주는 4일 오후 4시30분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3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대구FC와 격돌한다. 지난달 26일 홈 개막전에서 수원FC와 0-0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던 제주는 시즌 첫 승과 함께 성공의 여정을 가한다.

대구에는 쉽지 않은 상대다. 제주는

지난 시즌 대구를 상대로 2무 1패로 부진했다. 대구는 지난달 26일 포항 원정에서 2-3 역전패를 당했지만 선수비 후역습을 앞세워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특점인 2골 모두 세트피스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제주로서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전담 키커인 세징야의 위협적인 볼 케치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높이를 보유한 임채민을 중심으로 커팅해야 한다. 공격 전환 시에는 최영준의 부상 공백이 아쉽지만 멀리

플레이어 김봉수와 유스팀 출신 유망주 한종무가 볼 배급에 나설 수 있다.

공격의 속도는 헤이스의 발끝에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헤이스는 홈 개막전에서 동료들의 부상 변수로 인해 벤치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남기일 감독은 경기 후 헤이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구 원정 선발 출전을 예고했다.

헤이스와 유리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헤이스는 동계훈련 동안 진행된 10차례 연습경기에서 3골 3도움을 기록했다. 유리는 10경기에서 무려 10골을 터트렸다. 헤이스와 유리의 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격

옵션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첫 출격을 앞둔 헤이스는 “내게는 예상치 못한 ‘쉽표’였다. 오히려 동료들의 부상이 안타까웠다”며 “대구 원정에서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더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팬들에게 첫 승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남기일 감독은 “일단 수비에서 안정을 가져가면서 공격으로 전환 시 마무리 작업까지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며 “특히 헤이스의 동기부여가 강해 기대하고 있다. 홈 개막전의 아쉬움을 털어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PGA 투어, LIV 골프에 밀릴 수 없다 내년부터 컷 없는 대회 8개 개최 예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내년부터 선수 70~80명만 출전해 컷 없는 대회 8개를 치를 예정이라고 2일(한국시간) 밝혔다.

컷 없이 출전 선수가 모두 상금을 받는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아 PGA 투어에 대항하는 LIV 골프와 ‘얇은 풀’ 방식이다.

LIV 골프는 48명의 선수가 컷 없이 54홀 경기를 치러 순위를 가린다.

다만 PGA투어의 ‘노컷 대회’는 LIV 골프와 달리 72홀로 치른다. 54홀 대회는 세계랭킹 포인트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컷 대회’ 확대는 최정상급 선수들에게 더 많은 상금이 돌아가도록 메이저대회를 포함해 17개 특급 대회를 지정해 총상금을 최하 2000만 달러로 올린 조치에

이은 2단 격이다.

막대한 상금을 큰 노력 없이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LIV 골프에 선수들은 뺏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컷 없는 대회 출전 선수 자격은 전년 페덱스컵 랭킹 50위, 세계랭킹 30위, 그리고 대회 즈음 페덱스컵 랭킹 10위, 투어 대회 우승자 등으로 제한해 정상급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컷 없는 대회가 8개나 생긴다면 정상급 선수들이 LIV 골프로 건너갈 매력도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PGA투어에는 지금도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더CJ컵, 조조 챔피언십 일부 컷 없는 대회를 치르고 있다.

대신 PGA투어는 메이저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총상금 2000만 달러짜리 특급대회에 의무 출전 규정을 없앨 방침이다. 연합뉴스

철통 보안 대표팀 첫 ‘완전체’ 훈련

WBC 연장 승부치기 대비 작전 훈련 소화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의 첫 ‘완전체’ 소집 훈련이 벌어진 2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 지하 주차장은 야구장에 못 들어간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야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보안 요원들이 통제하면서 미리 도착한 취재진은 대표팀이 예고한 훈련 공개 시간인 오후 4시 25분까지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철통 보안’을 지킨 채 소화한 훈련은 바로 번트다.

이틀 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경기가 열릴 일본으로 출국하는 대표팀은 마지막까지 김민호(LG 트윈스) 3루 작전 코치의 지시에 따라 작전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투수 캠프에서부터 진행하던 훈련이다. 연장 승부치기에 대비해 우리의 번트 공격과 수비 모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정규이닝(9이닝)에 승패를 가리지 못하면 연장 10회 초부터 무사 2루에서 공격하는 승부치기를 진행한다.

선수 작전 수행 능력에 승패가

결린 만큼, 이강철호는 투수 캠프에서부터 해당 훈련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때 외부로 작전이 노출하는 걸 방지하려고 취재진과 팬들이 영상을 찍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투수에서 훈련을 마친 야구대표팀 본진은 탑승 예정이던 비행기가 고장이 나는 일이 겹치면서 친선만고 끝에 지난 1일 오후야 한국에 도착했다.

곧바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숙소로 이동해 짐을 풀고, 하루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고척스카이돔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이날 훈련은 대표팀 키스톤 콤비인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처음으로 동료들과 호흡을 맞췄다.

KBO 관계자는 “번트 작전 훈련은 투수에서 계속해오던 것이지만, 4번(2루수 에드먼)과 6번(유격수 김하성)이 합류하고 다시 손발을 맞춰보아야 해서 보안을 지킨 채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빅리거 현수와 미래 한 자리에...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훈련에서 에드먼(왼쪽), 김하성, 이정후(오른쪽)가 동료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의 영역 확장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2023’ 9개 종목에 포함 IOC, 글로벌 가상 스포츠 대회 세부사항 발표

우리나라의 국기(國旗) 태권도가 e스포츠로 영역을 넓혀간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2023’과 관련해 9개 종목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9개 종목은 태권도를 비롯해 양궁, 야구, 체스, 사이클, 댄스, 요트, 모터스포츠, 테니스다.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는 IOC가 국제경기연맹(IFs), 게임 제작·배급사와 함께 만든 글로벌 버추얼(가상) 및 시뮬레이션 스포츠 대회다.

가상 스포츠는 IOC가 스포츠의 미래 동력으로 판단하고 ‘올림픽 어젠다 2020+5’의제 중 하나로 삼은 핵심 사업이다.

IOC는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2021년에 처음으로 게임을 기반으로 한 e스포츠 대회인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이날부터 예선을 시작하고 결승전은 6월 22~25일 싱가포르 선택 센터에서 실시간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IOC는 결승전이 최근 발표된 ‘올림픽 e스포츠 주간 2023’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가상 스포츠의 시장성을 예측하고 지난 수년간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게임 및 정보기술회사 ‘리프랙트’(Refract)와 손잡고 가상 태권도 겨루기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손으로만 하는 컴퓨터 게임과 달리 가상 겨루기 시스템은 실제 태권도 경기와 유사하며 모션 트래킹 기술을 활용해 전신 움직임을 정교하게 추적해 실제 상대의 아바타와 일대일로 겨루는 방식이다. 플레이어의 몸은 게임 컨트롤러가 된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들지 못하는 상대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리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건심리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년 어재활사